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화제성 높았던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미국 콘텐츠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2024년 2호

| 구분(장르) | 제 목 | Key Word |
|--------|---|--|
| 심층이슈 | 화제성 높았던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제96회 오스카 시상식이 2024년 3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돌비 시어터(Dolby Theatre)에서 열렸음.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한 7개 부문을 수상하며 단연 이날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영화는 <오픈하이머>였으며, 이 밖에도 2023년 미국 극장가와 스트리밍 플랫폼을 빛낸 영화들이 다종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로 호명됐음. 시상식에 대한 평이 갈리기는 하지만, 팬데믹 이후 최고 시청자 수를 기록한 제96회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 본 보고서는 제96회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정리하고, 시상식 이후 <버라이어티>, <할리우드 리포터>, <인디와이어>, <USA투데이>, <워싱턴포스트>, <더 가디언> 등 미국 및 해외 미디어들이 내놓은 시상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할리우드의 동향과 2024년 오스카 시상식에 내포한 함의를 사회문화적,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봄 |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오픈하이머, 가여운 것들, 크리스토퍼 놀란, 요르고스 란티모스, 바비, 라이언 고슬링, 존 시나, 도널드 트럼프, 할리우드, 영화, 넷플릭스, 애플TV+ |

작성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LA)비즈니스센터

배포 | 2024.03.26



미국 콘텐츠산업동향

I. 화제성 높았던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목차

1.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 1) 2020년 방송된 시상식 통틀어 최고 시청자 수
- 2) <오펜하이머>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작품상 두고 경쟁

2. 주요 수상작 소개

- 1) <오펜하이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수상
- 2) 2023년 여름 극장가 달군 '바벤하이머' 열풍, 시상식에서도 이어져
- 3) <가여운 것들>: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수상
- 4) 그 외 수상작들

3. 시상식 하이라이트

- 1) 라이언 고슬링 "I am Just Ken" 퍼포먼스
- 2) 존 시나, 나체로 시상하러 무대에 올라
- 3) 도널드 트럼프,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SNS 포스팅

4. 오스카 시상식으로 엿본 미국 영화산업 동향

- 1) 영화산업의 근간은 관객
- 2) 빈손으로 돌아간 스트리밍 플랫폼들
- 3) 안전한 선택에서 벗어나 실험적 시도와 창의적인 노력 필요해
- 4) 전쟁 주제로 한 영화들 수상 잇따라

5. 정리와 시사점

1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1. 2020년 이후 방송된 시상식 통틀어 최고 시청자 수

✔ 약 1,950 만 명 시청자가 오스카 시상식 시청

- 제 96 회 오스카 시상식은 2024 년 3 월 10 일 일요일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7 시(서부 기준 오후 4 시) ABC 채널 및 각종 온라인 플랫폼, 앱을 통해서 생중계됐음
- 오스카 시상식은 미국 영화과학예술 아카데미(AMPAS,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 and Science)가 주최하며, 2023 년 개봉한 영화 중 영화관 개봉 여부와 개봉일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아카데미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23 개 부문의 후보와 수상작을 결정함

- 올해 시상식의 진행자는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를 진행하는 지미 키멜(Jimmy Kimmel)이 맡았으며, 키멜은 2017년, 2018년, 2023년에 이어 4번째로 오스카 시상식을 진행했음
-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올해 시상식은 약 1,950만 명의 시청자가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0년 이후 방송된 시상식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가 오스카 시상식 방송을 시청했음

2. <오픈하이머>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작품상 두고 경쟁

✔ <오픈하이머> 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 석권

- 제 96회 오스카 시상식의 주인공은 작품상, 감독상 등 7개 부문에서 수상한 <오픈하이머>였음. <오픈하이머>는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촬영상, 의상상, 편집상, 분장상, 음악상, 미술상, 음향상 등 13개 부문에 후보로 오르며 초반부터 오스카 레이스의 선두를 달렸음
- <오픈하이머>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두 작품, 요르고스 란티모스(Yorgos Lanthimos) 감독 <가여운 것들>과 마틴 스코세이지(Martin Scorsese) 감독 <플라워 킬링 문>은 각각 11개, 10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됐으나, <가여운 것들>은 여우주연상과 미술상, 의상상, 그리고 분장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플라워 킬링 문>은 마틴 스코시즈 영화로는 13번째로 오스카 10개 이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나 단 하나의 수상도 하지 못했음



| 그림 1 | <오픈하이머> (출처: 구글 이미지)

2 주요 수상작 소개



1. <오픈하이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등 수상

- ✔ <오픈하이머>, 2023년 미국 박스오피스 전체 5위

- 오스카 시상식 최고 영광으로 꼽히는 작품상을 수상한 <오픈하이머>는 제 2 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끈 ‘원자폭탄의 아버지’ 물리학자 J. 로버트 오픈하이머의 삶을 그린 전기영화
- 2023 년 7 월 개봉해 미국 내에서 3 억 2,970 만 달러, 해외 지역에서 6 억 3,056 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려 전 세계 흥행수입으로 9 억 6,026 만 달러를 기록했다. <오픈하이머>는 2023 년 미국 박스 오피스 전체 5 위를 기록했으며, 흥행 1 위는 <바비>로 북미 흥행수입 6 억 3,622 만 달러를 기록했다¹⁾
- <다크 나이트> 3 부작과 <인터스텔라>, <덩케르크>, <테넷>을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감독은 올해 53 세로 그가 연출한 영화들이 전 세계에서 60 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가장 수익성 좋은 영화감독으로 꼽힘에도 올해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했음
- 스티븐 스피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이 시상자로 오른 감독상 수상 무대에서 놀란 감독은 수상 소감으로 “영화의 역사는 100 년이 조금 넘었다. 앞으로 영화의 여정이 어떻게 될지 기대된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내가 인정받았다는 것이 나에게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 그림 2 | 감독상 수상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출처: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 작품상 수상은 영화의 프로듀서가 트로피를 받는데 놀란의 부인이자 그의 필모그래피에 제작자로 함께해온 엠마 토머스(Emma Thomas)가 무대에 올라 수상소감을 말했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제작사인 유니버설 픽처스에 감사를 전하는 데 더해 엠마 토머스 제작자는 아이맥스의 리치 겔폰드(Richard Gelfond) 대표의 이름을 언급해 <오픈하이머>의 아이맥스 촬영과 상영이 영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했음
- <오픈하이머>는 작품상, 감독상 외에도 남우주연상 킬리언 머피(Cillian Murphy), 남우조연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음악상 루드비히 고란손(Ludwig Goransson), 촬영상 호이트 반 호이테마(Hoyte van Hoytema), 편집상 제니퍼 레임(Jennifer Lame) 등

1) <https://www.boxofficemojo.com/year/2023/>

5 개 부문을 추가로 수상함

2. 2023년 여름 극장가를 달군 ‘바벤하이머’ 열풍, 시상식에서도 이어져

☑️ <바비>와 <오픈하이머>의 활약으로 북미 박스오피스 회복세

- 총 13 개 부문의 후보로 오른 <오픈하이머>는 11 개 부문에 오른 <가여운 것들>, 10 개 부문 후보에 오른 <플라워 킬링 문>이 아닌 4 번째 최다부문 후보 지명작인 <바비>와 경쟁 구도로 부각되었음²⁾
- 이는 정 반대 성향의 두 영화가 같은 날 개봉하면서 시작된 ‘바벤하이머(Barbenheimer)’ 신드롬을 만들어낸 문화 현상이 이어진 것으로, 관객들은 두 영화를 동반 관람하는 등 ‘바벤하이머’ 열풍에 동참했고 개봉 첫날 동반관람 관객이 미국에서만 20 만 명에 달했음³⁾



| 그림 3 | 네티즌이 만든 바벤하이머 밈 (출처: 스크린크러쉬)

- 2023 년 여름 극장가를 이끌었던 <오픈하이머>와 <바비>(그레타 거윅 감독, 마고 로비 주연) 두 흥행작 덕분에 2023 년 북미 박스오피스 총 수입은 90 억 달러를 넘어섰음. 이는 팬데믹 이후 최고 수입으로 이전 평균과 비교하면 20 억 달러 부족하지만, 팬데믹 이후 추락했던 극장수입에서 큰 회복세를 보였음
- 바벤하이머 열풍은 오스카 시상식에서도 이어졌음. 스텐트 전문가들의 공로를 축하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에밀리 블런트(<오픈하이머> 출연, 여우조연상 후보)와 라이언 고슬링(<바비> 출연, 남우조연상 후보)는 옥신각신하는 장면을 만들어냈으며, <바비>에서 켄으로 활약한 라이언 고슬링은 <바비>를 상징하는 핫핑크 수트를 입고 “I am Just Ken”(<바비>, 주제가상 후보)

2) <https://www.vulture.com/article/barbenheimer-memes.html>

3) <https://screencrush.com/best-barbenheimer-memes/>

무대를 꾸며 객석의 큰 환호를 받았음

- 한편 총 8개 부문에 후보로 지명됐던 〈바비〉는 주제곡상 1개 부문 수상에 그침

3. 〈가여운 것들〉: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수상

✔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등 미학적 성취 인정받아

- 〈오픈하이머〉가 주요부문을 수상하기는 했으나, 〈가여운 것들〉 역시 여우주연상 엠마 스톤(Emma Stone), 미술상 제임스 프라이스(James Price)와 쇼나 히스(Shona Heath), 의상상 홀리 웨딩턴(Holly Waddington), 분장상 나디아 스테이시(Nadia Stacey), 마크 콜리어(Mark Coulier), 조쉬 웨스턴(Josh Western) 등 미학적이고 시각적인 성취를 인정받아 4개 부문을 수상함. 이 두 영화를 제외하면 다수 부문을 수상한 영화는 없었음
- 오克拉호마 지역의 원주민 오세이지(Osage) 부족에서 일어나는 연쇄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플라워 킬링 문〉에서 몰리 버크하트(Mollie Burkhardt) 역을 연기한 릴리 글래드스톤(Lily Gladstone)이 미국 원주민 배우로는 첫 오스카 수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으나,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⁴⁾
- 〈더 랩스터〉 〈더 페이보릿: 여왕의 여자〉를 만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여운 것들〉은 스코틀랜드 작가 앨레스테어 그레이(Alasdair Gray)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SF 영화



| 그림 4 | 〈가여운 것들〉 (출처: 롤링스톤즈)

- 〈가여운 것들〉은 제 80 회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괴이한 과학자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여자 벨라 백스터(엠마 스톤)를 통해 익히 알려진 프랑켄슈타인

4) <https://www.cbsnews.com/news/oscars-lily-gladstone-first-native-american-nominated-best-actress-killers-of-the-flower-moon>

스토리를 여성 서사 중심으로 풀어냈음. 소설과는 다른 결말로 관객들의 반응이 엇갈림

- 〈가여운 것들〉은 2023년 12월 개봉해 북미 흥행수입으로 3,437만 달러를 기록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영화지만, 오스카 수상의 후광은 물론이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섬세한 연출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로 인해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재생횟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 그리스 출신의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더 랍스터〉 이후 할리우드에서 영어로 영화를 만들고 있으며,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리메이크를 연출할 예정

4. 그 외 수상작들

❖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 수상 불발

- 이외에도 주요 부문 수상자로는 알렉산더 페인(Alexander Payne) 감독이 연출한 〈바튼 아카데미〉의 디바인 조이 란돌프(Da'Vine Joy Randolph)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각본상은 〈추락의 해부〉의 쥐스틴 트리에(Justine Triet)와 아르투르 하라리(Arthur Harari), 각색상은 〈아메리칸 픽션〉의 코드 제퍼슨(Cord Jefferson)이 수상했음
-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2023년작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단편 애니메이션상은 〈워 이즈 오버!〉가 수상했음
- 단편영화상은 넷플릭스가 제작하고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감독이 연출한 〈더 원더플 스토리 오브 헨리 슈가〉가 수상했음. 로알드 달(Roald Dahl)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에는 레이프 파인즈(Ralph Fiennes), 베네딕트 컴버배치(Benedict Cumberbatch), 데브 파텔(Dev Patel), 벤 킹슬리(Ben Kingsley) 등의 배우들이 출연했음
- 2019년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과 함께 수상했던 국제영화상은 올해 영국 감독 조너선 글레이저(Jonathan Glazer)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수상했음
-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인 셀린 송(Celine Song)이 연출하고 한국배우 유태오가 출연해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패스트 라이브즈〉는 작품상, 감독상 2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으나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3 시상식 하이라이트



1. 라이언 고슬링의 “I am Just Ken” 퍼포먼스

❖ 〈바비〉 주제가 중 하나로, 객석이 따라부르는 싱얼롱 무대로 환호

- 주제가상 후보로 오른 〈바비〉의 수록곡 중 하나인 “I am Just Ken” 퍼포먼스는 시상식이 시작하고 첫 번째로 무대에 오른 라이브 공연이었음



| 그림 5 | <I am Just Ken> 오스카 시상식 무대 공연 (출처: 버라이어티)

-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켄 중 한 사람을 연기한 라이언 고슬링(Ryan Gosling)은 핫핑크 컬러에 반짝이는 스팅글이 장식된 수트를 입고 바비를 연기한 마고 로비(Margot Robbie)의 뒷자리에 앉아서 공연을 시작함
- <바비>가 2023년 최고 흥행작이었던 만큼 이 무대는 객석이 따라부르는 싱얼롱(Sing-along) 공연으로 바뀌었고, <바비>의 그레타 거윅(Greta Gerwig) 감독, 마고 로비에 이어 <가여운 것들>의 엠마 스톤 또한 마이크를 넘겨받아 따라 부르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됐음
- 작곡자이며 퍼포먼스 무대의 프로듀서인 마크 론슨(Mark Ronson)은 “라이언 고슬링과 함께하는 최초이고 마지막인 라이브 공연일 것”이라고 이날 시상식에서 펼쳐진 공연의 특별함을 강조했다⁵⁾
- 다수의 미디어들이 이 무대를 2024년 오스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로 꼽았음

2. 존 시나, 나체로 시상하러 무대에 올라

✔ 의상상의 중요성 강조하는 퍼포먼스

- 한편, 의상상의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존 시나(John Cena)도 2024년 오스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로 꼽힘.
- “의상은, 몹시, 중요합니다”라고 입을 연 존 시나는 커다란 봉투로 주요부위를 가린 채 시상자로 올라 주목을 받았음
- 이 퍼포먼스는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쇼’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를 부각시켰음은 물론이고, 시상 부문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했다는 호평을 받았음

5) <https://www.theguardian.com/film/2024/mar/11/ryan-gosling-im-just-ken-oscars>



| 그림 6 | 의상상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존 시나 (출처: LA타임즈)

3. 도널드 트럼프, 오스카 시상식에 대해 SNS 포스팅

✔ 진행자 비하하고 시상식 폄하하는 악성 포스팅

- 미국 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트루스(Truth)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자인 지미 키멜(Jimmy Kimmel)을 비하하고 오스카 시상식을 폄하하는 내용을 포스팅 했는데, 셀러브리티가 온라인에 올라온 자신에 대한 악플을 읽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지미 키멜이 시상식이 후반에 이르렀을 때 즈음 즉흥적으로 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포스팅을 읽음⁶⁾
- 지미 키멜은 "지미 키멜 대신 다른 사람이 진행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라는 의도의 악성 포스팅을 줄여서 읽은 뒤, 카메라를 응시하며 (도널드 트럼프에게)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옥 갈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라고 반문했고 객석에서는 웃음을 터뜨렸음
- 다수의 미디어에서 전직 대통령의 실시간 포스팅을 받은 것만으로도 성공한 쇼라는 언급이 많았음

6) <https://www.reuters.com/lifestyle/takeaways-2024-oscars-show-2024-03-11/>



Truth Details

660 Replies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Has there EVER been a WORSE HOST than Jimmy Kimmel at The Oscars. His opening was that of a less than average person trying too hard to be something which he is not, and never can be. Get rid of Kimmel and perhaps replace him with another washed up, but cheap, ABC "talent," George Slopanopoulos. He would make everybody on stage look bigger, stronger, and more glamorous. Also a really bad politically correct show tonight, and for years - Disjointed, boring, and very unfair. Why don't they just give the Oscars to those that deserve them. Maybe that way their audience and TV ratings will come back from the depths. MAKE AMERICA GREAT AGAIN!

859 ReTruths 3.56k Likes 3/10/24, 9:39 PM

| 그림 7 | 트루스 포스팅 (출처: 구글 이미지)

4

오스카 시상식으로 엇본 미국 영화산업 동향



1. 영화산업의 근간은 관객

✔️ 관객이 선택하는 영화

- 대부분 예상 가능한 수상작(자)들이었지만 시상식에 대한 평은 엇갈렸음. 2024년 오스카 시상식은 팬데믹으로 영화 및 방송산업이 침체기를 겪은 뒤인 2020년부터 진행된 각종 시상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했음⁷⁾
- 3월 10일 ABC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제 96회 오스카 시상식은 대략 1,95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시청자 수인 1,870만 명보다 약 4% 상승한 수치임. TV로 시상식을 보는 데 익숙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젊은 세대보다는 60세 이상의 시청자가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음
- 오스카 시상식은 1990년대 이후 시청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 1990년대는 평균 4천만 명이 시상식을 시청할 만큼 화제성이 있는 시상식이었으나, 여러 가지 변화를 산업이 겪어왔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늘어남에 따라 시청자 수가 점차 줄어왔음. 심지어 팬데믹 첫해인 2020년 개봉영화를 대상으로 했던 2021년 시상식은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58% 하락한 985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음
- <워싱턴포스트>는 2024년 오스카 시상식의 시청자 수가 전년 대비 상승한 데에 다양한 근거를

7) <https://www.usatoday.com/story/entertainment/movies/2024/03/11/the-2024-oscars-were-worse-than-bad-they-were-boring-review/72873219007/>

내놓았는데, 첫째로 시상식에 후보로 오른 영화들의 친숙도가 시청자들에게 높았기 때문에 박스오피스에서 화제가 됐던 영화들 <바비> <오픈하이머> 등이 후보로 지명된 사실이 시청자들이 시상식에까지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함 8)

Domestic Box Office For 2023

| Rank | Release | Gross | Theaters | Total Gross | Release Date | Distributor |
|------|-------------------------------------|---------------|----------|---------------|--------------|-------------------------------------|
| 1 | Barbie | \$636,225,983 | 4,337 | \$636,238,421 | Jul 21 | Warner Bros. |
| 2 | The Super Mario Bros. Movie | \$574,934,330 | 4,371 | \$574,934,330 | Apr 5 | Universal Pictures |
| 3 | Spider-Man: Across the Spider-Verse | \$381,311,319 | 4,332 | \$381,311,319 | Jun 2 | Columbia Pictures |
| 4 | Guardians of the Galaxy Vol. 3 | \$358,995,815 | 4,450 | \$358,995,815 | May 5 |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
| 5 | Oppenheimer | \$326,101,370 | 3,761 | \$329,702,240 | Jul 21 | Universal Pictures |
| 6 | The Little Mermaid | \$298,172,056 | 4,320 | \$298,172,056 | May 26 |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
| 7 | Avatar: The Way of Water | \$283,067,859 | 4,340 | \$684,075,767 | Dec 16 | 20th Century Studios |
| 8 | Ant-Man and the Wasp: Quantumania | \$214,504,909 | 4,345 | \$214,504,909 | Feb 17 | Walt Disney Studios Motion Pictures |
| 9 | John Wick: Chapter 4 | \$187,131,806 | 3,855 | \$187,131,806 | Mar 24 | Lionsgate Films |
| 10 | Sound of Freedom | \$184,177,725 | 3,411 | \$184,178,046 | Jul 4 | Angel Studios |

| 그림 8 | 2023년 미국 박스오피스 흥행 순위 (출처: 박스오피스 모조)

- 둘째는 라이언 고슬링의 “I am Just Ken” 퍼포먼스, 셋째는 의상상 시상자로 무대에 오른 존 시나 덕분이라는 분석. 두 퍼포먼스 모두 과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효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
- 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오스카 시상식의 시청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수의 취향을 가진 팬들을 위한 후보 지명이 아닌, 영화산업을 지탱하는 다수의 영화관객이 인정하는 영화가 주요 부문에서 시상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음
- 오스카 트로피가 관객이 주는 상이 아니라 산업의 동료들이 동료들에게 주는 상이라는 점에서 상업성이 수상이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 영화산업이 존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관객의 취향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회였음

2. 빈손으로 돌아간 스트리밍 플랫폼들

✔ 넷플릭스 1 개 부문 수상, 애플 TV+는 빈손

- 한편, 2024 년 오스카 시상식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에게는 실속 없는 자리였음. <플라워 킬링 문>으로 10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애플 TV+,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으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주요부문을 포함한 7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된 넷플릭스 모두 수상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나폴레옹> 역시 애플 TV+가 제작하고 3 개 부문 후보로 지명됐으나 수상하지 못했음9)

8) <https://www.washingtonpost.com/entertainment/2024/03/11/2024-oscars-ratings-viewership-abc/>

9) <https://variety.com/2024/film/news/oscars-2024-netflix-apple-wins-streamers-1235935496/>



| 그림 9 |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출처: 구글 이미지)

- 넷플릭스는 단편영화상 부문에서 <더 원더풀 스토리 오브 헨리 슈가>로 수상했으나, 이 영화로 첫 오스카를 수상한 웨스 앤더슨 감독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음
-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나폴레옹> <플라워 킬링 문> 등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작하고 유명한 감독과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오픈하이머> <가여운 것들>과 비교해 작품성이나 상업성에서 부족한 영화라고 평가할 수 없으나, 극장의 큰 화면에서 전달되는 영화의 감각이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 동일하게 전달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제작하는 영화들은 굳이 극장을 찾지 않아도 극장 개봉과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공개되기 때문에 구독자들은 일부러 극장에 가기보다는 공개 날짜를 기다리게 되며, 그런 이유로 영화에 대한 입소문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넷플릭스, 애플 TV+가 오스카에서 다수 부문의 수상은 물론 작품상 등의 주요부문을 수상한 이력도 있으나, 스트리밍 플랫폼의 경우 특정 영화가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함

3. 안전한 선택에서 벗어나 실험적 시도와 창의적인 노력 필요해

✔ IP 의존도 높은 현재의 제작상황 비판

- 상업성을 인정받은 영화들이 후보로 오르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지만, 더 많은 영화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는 못한 아쉬움은 있음
- 관객 없이 영화가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관객의 관심을 끄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메리칸 픽션>으로 각색상을 수상한 코드 제퍼슨의 수상소감, “2억 달러를 벌 수 있는 영화 1편을 만드는 것보다 1천만 달러를 벌 수 있는 영화 20편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은 앞으로 할리우드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음
- IP에 의존한 안전한 영화들을 제작해 비슷비슷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 현재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됨
- 또한 고집스럽게 극장에서의 개봉, 큰 화면에서의 경험을 지켜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많은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영화들에게 큰 화면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역설했음

4. 전쟁을 주제로한 영화들 수상 잇따라

✔ 현실 반영한 영화들의 수상으로 시의성과 시사성 높여

- 전쟁이 진행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이유로, 올해 오스카 시상식 수상작 중에는 전쟁과 관련된 영화가 많았음. <존 오브 인터레스트>(국제영화상), <마리우폴에서의 20 일>(장편 다큐멘터리상), <워 이즈 오버!>(단편애니메이션상)이 전쟁을 주제로 한 수상작들



| 그림 10 | <존 오브 인터레스트> (출처: 구글 이미지)

-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지휘관 루돌프와 그의 가족의 일상을 수용소에서의 모습과 강렬하게 대비시킨 극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조너선 글레이저 감독은 “이스라엘에서 지난 해 10 월 7 일 발생한 희생자들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자지구 공격으로 발생한 희생자 역시 모두 비인간화의 피해자들이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그 뒤 글레이저 감독은 홀로코스트 생존자 재단(HSF)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받았음
-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 일>의 엠스티슬라브 체르노프(Mstyslav Chernov)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우크라이나 영화로는 첫 오스카 수상”이라며 “이 영광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은 역사와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다”고 말했음. 또한, 이런 영화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임
- “영화는 기억을 만들고, 기억은 역사를 형성한다”는 마지막 말로 우크라이나를 기억해달라고 강조해 객석의 힘찬 박수를 받았음
- 마지막으로 <오펜하이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킬리언 머피 역시 현재진행형의 전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음. 머피는 우리는 오펜하이머가 만든 결과물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수상의 영광을 지구 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돌리고 싶다고 말했음

5 정리와 시사점



- ✔ 2024년 3월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 제96회 오스카 시상식은 예상 가능한 수상작들로 이변은 없었지만, 작품성과 흥행성을 고루 갖춘 영화들이 후보로 오른 만큼 시청자들의 관심을 고루 받은 성공적인 시상식으로 평가됨.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상식, 진행자에 대해 악평을 내놓은 미디어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불평할 거리 없는, 그러나 충분히 즐겁고 놀라운 시상식”이라는 호평을 받았음
- ✔ 올해 오스카 시상식의 주인공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한 <오펜하이머>. 후보작 지명 때부터 13개 부문 후보로 지명돼 주목을 받았으며, 시상식 최고의 영광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남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촬영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했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감독으로 꼽히는데 올해 첫 오스카 상을 수상 했음
- ✔ <오펜하이머>와 함께 경쟁한 <가여운 것들> <플라워 킬링 문> <바비> 중 <가여운 것들>이 여우주연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했으며, 다른 영화들은 1개 부문을 수상하거나 수상하지 못했음. 여러 작품에 수상이 돌아감으로써 다양한 영화가 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마틴 스코시즈 감독, 리들리 스콧 감독 등 거장의 영화가 수상작이 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았음
- ✔ 작품상과 각본상에 후보로 올랐던 한국계 캐나다인 셸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한국배우 유태오의 출연으로 수상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 불발됨
- ✔ 올해 오스카 시상식의 하이라이트는 라이언 고슬링의 “I am Just Ken” 퍼포먼스, 존 시나의 나체 시상, 도널드 트럼프의 SNS 악평 테러가 꼽혔음
- ✔ 이 같은 자극적인 퍼포먼스와 이벤트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올해 시상식이 최근 진행된 각종 시상식을 통틀어 가장 많은 시청자수를 기록한 데는 후보로 지명된 영화들이 시청자들이 이미 본, 익숙한 작품들이라는 이유가 유효했음
- ✔ 다시 말하면, 내가 본 영화가 수상작이 되는지 관심을 가진 시청자들이 시상식을 시청했다는 의미로, 오스카 트로피가 아카데미 회원들이 1년 동안의 영화적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투표로 주인을 결정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관객이 없는 영화가 있을 수 없듯이 시상식 역시 시청자를 염두에 둔 후보작 지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마리우폴에서의 20일> 등 전쟁의 참상을 다룬 영화들의 수상은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의성 있는 선택을 보여줬음. 전쟁이 계속되는 한, 오스카 시상식에서 전쟁 영화의 수상과 이에 대한 수상소감을 듣는 일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 또한 할리우드의 제작 현황 및 개봉 방식에 대해 따끔한 제안을 하는 영화인들의 소감도 이어졌음. 스트리밍 플랫폼의 출현 이후, 극장개봉보다는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영화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영화들에게도 큰 화면에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제안에 이어 코드 제퍼슨(<아메리칸 픽션> 각색상 수상)은 IP 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롭고 창의성 있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역설했음

- ✔ 올해 넷플릭스와 애플 TV+는 수상작이 거의 없었는데, 플랫폼의 특성과 영화의 장르 사이의 수상에 대한 상관관계를 결론짓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함. 그러나, 큰 화면에서 관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영화와 작은 화면의 경험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구태여 영화관에서 보려는 관객은 많지 않다는 점도 앞으로 오스카 캠페인을 하려고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임

미국 비즈니스센터 담당자 연락처

| | | |
|---------|-----------------|--------------------|
| 박병호 센터장 | +1-323-935-2070 | jackone@kocca.kr |
| 엘리홍 부장 | +1-323-935-5001 | elliehong@kocca.kr |
| 권순형 대리 | +1-323-935-5001 | skwon@kocca.kr |

화제성 높았던 제96회 오스카 시상식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박병호 (미국비즈니스센터 센터장) 권순형 (미국비즈니스센터 대리)

집필자 안현진

발행인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발행일 2024년 3월 26일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 (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홈페이지 www.kocca.kr

ISSN 2733-5798 (비매품)

- 본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의 <콘텐츠지식>에 게재되는 보고서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콘텐츠종합지원센터 “콘텐츠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1566-1114”